

‘난적’ 이란 깐 한국 내일밤엔 ‘숙적’ 일본 깐다

亞컵 4강 한국 VS 일본 호주 VS 우즈벡 대결



51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연장 혈투 끝에 난적 이란을 제압하고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4강에 올랐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 경기에서 연장 전반 15분 윤빛가람(경남)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이란을 1-0으로 꺾었다.

한국은 값진 승리로 4강 대열에 합류해 1960년 이후 5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대회 우승 꿈을 이어갔다. 1996년 대회부터 5회 연속 아시안컵 8강에서 맞붙은 이란과는 역대 전적에서 9승7무9패로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개최국 카타르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오른 영원한 맞수 일본과 25일 오후 10시25분 알 가라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또 다른 4강전에서는 호주-우즈베키스탄이 맞붙는다.

조광래 감독은 호주와 조별리그 2차전 패선발전으로 이란에 맞섰다. 4-2-3-1 포메이션에서 지동원(전남)을 최첨방에 세우고 최진 스타라이커에 구자철(제주), 좌·우측면 미드필더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불턴)을 배치했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셀틱)과 이용래(수원)가 호흡을 맞췄고, 포백 수비진은 이영표(알힐랄)-이정수(알사드)-황재원(수원)-차두리(셀틱)로 꾸렸다.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켰다.

이란이 공격 2선까지 후방으로 내려서 수비벽을 두텁게 쌓는 바람에 공격이 쉽지 않았다. 전반 28분 칼라트바리가 미드필드 왼쪽에서 차올린 프리킥이 지동원의 머리를 스쳐 자책골이 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성룡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득점없이 전반을 마친 조광래 감독은 선수교체 없이 후반을 시작했다. 반면 압신 고트비 이란 감독은 오른쪽 풀백 모하마드 노스라티를 빼고 코스로 헤이다리를 투입했다.

한국은 후반 18분 결정적 득점 기회를 맞았다. 차두리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렸고 지동원이 골문 정면에서 솟구쳐 올라 헤딩으로 돌려놓았지만, 골키퍼 메디 라마티의 정면으로 향했다.

조광래 감독은 체력 소모가 많았던 구자철을 후반 36분 벤치로 불러들이고 윤빛가람을 내보내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아시아 최강팀 간 격돌답게 결국 90분으로는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승패가 갈린 것은 연장 전반이 끝날 무렵이었다. 윤빛가람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 가운데로 퓌퓌 치고 들어오다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원발슛을 날렸다. 윤빛가람의 발을 떠난 공은 이란 골문 왼쪽 구석에 그대로 꽂혔다.

조 감독은 바로 지친 미드필더 기성용을 빼고 수비수 홍정호(제주)를 투입했고, 이후 박지성을 불러들이고 염기훈(수원)을 내보내 힘들게 잡은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이란 경기에서 윤빛가람이 연장 전반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극적상황 킬러 본능 드러낸 ‘조광래의 황태자’

■ 이란전 천금의 결승골 윤빛가람

윤빛가람(21·경남)이 51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으로 가는 가장 큰 고비에서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며 ‘조광래호 황태자’로서 진가를 입증해냈다.

23일 이란과 대회 8강전에서 후반에 교체투입된 윤빛가람은 연장 전반 15분 희사의 원발 슛으로 한국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조광래 감독의 첫번째 교체카드로 후반 37분 구자철 대신 그라운드에 들어선 윤빛가람은 지친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했지만 투입 초반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했다. 후반 44분에는 골문 앞에서 공을 잡고도 망설임이 슈팅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피말리는 0-0의 균형이 이어지던 연장 전반이 지나갈 참, 윤빛가람은 자신에게 온 한차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 코너 외곽에서 공을 이어받은 윤빛가람은 수비진 2명이 따라볼자 정면을 향해 살짝 골

고 가다 그대로 기습적으로 원발 슛을 때렸다.

이란 수비수들은 윤빛가람이 기습적으로 때린 슈팅에 손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공은 그대로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대 골키퍼가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봤지만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 최고 수훈선수가 된 윤빛가람은 스승 조광래 감독의 기대를 100% 이상 만족시키며 ‘조광래호 황태자’ 계보의 적통임을 과시했다.

2007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뛴 유망주인 그는 대학(중앙대) 시절 부상으로 오랜 기간 그라운드를 떠나는 등 시련을 겪다 2009년 말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당시 경남 사령탑인 조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조 감독의 혹독한 조련으로 축구에 새롭게 눈뜬 윤빛가람은 지난 시즌 K리그 정규리그 24경기에서만 6골, 5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강력한 경쟁자 지동원을 누르고 신인왕에 올랐다.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조 감독은 지난해 8월 감독 데뷔



전인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윤빛가람을 과감히 대표팀에 발탁했고 그는 선제골로 2-1 승리를 견인하며 ‘조광래호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스승을 따라 생애 첫 아시안컵 무대를 밟은 그는 한국의 ‘이란 징크스’를 깨내는 데에 앞장서며 다시 한번 조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골을 넣고 바로 조광래 감독에게 달려가 안긴 윤빛가람은 “감독님이 그동안 채찍질을 많이 하셔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나를 분발하게 하려고 그러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코칭스태프가 격려를 많이 해줬다. 한 번의 기회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기회가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케로니 감독 “한국전 힘든 경기 될 것”

“서로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준결승에서 ‘운명의 한일전’을 앞둔 일본 축구대표팀의 알베르토 자케로니(58) 감독이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케로니 감독은 23일(한국시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기 내용은 물론 선수의 기량도 뛰어나고 경기장에서 선수의 배치도 훌륭하다”며 “4강전은 힘든 경기가 될 것이지만 한국도 힘든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케로니 감독은 코칭스태프와 함께 한국과 이란의 8강 경기가 치러진 카타르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을 찾아 전력 분석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일본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자케로니 감독은 그해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 평가전에서 0-0으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의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무릎 통증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한편 일본 대표팀의 주장 하세베 마코토(볼프스부르크)는 “경기 내용에서 한국이 이란보다 좋았다”며 “한국 선수들의 강한 승부욕을 느낄 수 있었다. 4강전에서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클래식 침실



클래식 거실, 식탁



앤티크식탁·좌탁·거실·침실



소파·카우치

SPACE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밀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티크,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